현실 잘 관찰하면 어디서나 法 발견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㉛ 법화사상

"득대세보살이여, 이 상불경보살마하살은 이렇게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 존중, 찬탄하여 온갖 선근을 심어서, 그 뒤에도 다시 천만억의 부처님을 만났고 또 그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설하며 공덕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었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의 상불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었겠는가. 바로 나였느니라. 만약 내가 과거세에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지 못했으리라. 내 지나간 세상에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워서 다른 이에게 설했으므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수 있었느니라.

득대세여, 그때의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는 화를 내어 나를 업신여긴 까닭으로, 2백억 겁 동안이나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법을 듣지 못하며, 스님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1천 겁 동안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다가 이 죄보를 다 마치고 다시 상불경보살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 교화함을 만났느니라.

득대세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사부대중으로 항상 이 보살을 업신여긴 자들이 어찌 다른 사람이었겠는가. 여기 이 모임 가운데의 발타바라(跋陀婆羅) 등 5백 보살과 사자월(師子月) 등 5백 비구니, 사불(思佛) 등 5백 우바새들이었느니라. 모두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었느니라.

득대세여, 마땅히 알아라.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마하살들을 크게 이롭게 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능히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은 여래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쓰고 해설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교법이 주로 인과법과 인연법으로 설해진다. 온갖 비유의 언사로 설해지는 부처님의 말씀이 인연법을 설하고 그 속에는 인과법이 들어있다. 〈법화경〉에서는 과거 생과 금생을 인과로 연결해 설하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득대세 보살에게 한 말씀이 상불경보살이 바로 석가모니 자신의 전생 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삼세의 인과관계가 전생이 금생의 원인이고 금생이 전생의 결과라는 사실과 금생이 내생의 원인이고 내생이 금생의 결과가 된다는 것은 불교 교리의 공식적인 정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화경〉에서는 삼세의 인과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과거 어느 부처님 시대의 왕이나 왕자이야기, 또 수기를 주는 내용도 미래세의 성불을 보장하는 이야기이므로 삼세 인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상불경보살을 업신여기던 대중들이 1천 겁 동안 아비지옥의 고통을 받다가 죄보를 마치고 상불경의 교화를 받았다는 말도 생을 바꾸어 온 이야기다. 다겁다생으로 이어지는 생사의 반복이 업감연기로 설명되면서 인과응보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이 성불의 인연이라는 점을 이 대목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부처님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과거세에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법화경〉이 성불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말로 법화수행의 인과가 경전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말이다.

법화사상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는 그의 저술 〈법화현의〉에서 '즉사이진(卽事而眞)'이란 말을 자주 썼다. 이 말은 '즉사현리(卽事顯理)'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현실 안에서 이상을 실현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구체적 상황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진리를 발견하여 이상적인 세계를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법화사상의 골자가 되는 말이다. 〈법화경〉의 사유체계나 그 세계관은 현실과 이상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법화의 일승사상이 바로 이런 것이다. 현실의 상황을 잘 관찰하면 어디서나 참된 이치가 발견된다는 것으로, 현실과 이상은 괴리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달관할 수 있는 수행을 통해 이상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현실은 수행의 무대이고 이상이 실현된 것이 부처의 세계가 되며, 법화경이 수행의 무대이고 동시에 부처의 세계가 열린 것이라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오신채부터 보살수행까지 큰 영향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㉛ 범망계(梵網戒)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권에 정착된 보살계는 범망계(梵網戒)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재가자와 출가자 모두가 보살계로 범망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가자는 오계를 받고서 보살계를 받으며, 출가자는 비구 · 비구니계를 받고서 보살계를 받는다. 또 고기나 오신채(五辛菜)를 먹지 않는 사찰음식 문화도 범망계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행해졌던 소신(燒身) · 소지(燒指) 등의 사신행(捨身行)도 범망계에 근거한 보살 수행이다. 이처럼 범망계는 오늘날까지도 재가자와 출가자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보살 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범망계는 5세기경에 중국에서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망경(梵網經)〉의 하권에 나오는 보살계이다.

상권에서는 보살의 수행단계를 40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는 수행자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서 4단계에 각각 10항목씩 순서대로 수행해나가는 것을 설한다. 제1단계인 10발취심(發趣心)은 수행의 출발점이며, 제2단계인 10장양심(長養心)은 수행의 육성이며, 제3단계인 10금강심(金剛心)은 견고한 마음이며, 제4단계인 10지(地)는 수행의 완성이다.

이를 정리하면 제1단계부터 제3단계까지는 보살 수행의 준비단계를 나타낸 것이며, 제4단계는 보살 수행의 완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가운데 제4단계의 10지는 〈화엄경(華嚴經)〉에 설해진 보살십지(菩薩十地)와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하권에는 보살이 불도(佛道)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가 설해지는데, 이것을 따로 떼어 보살계본(菩薩戒本)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가 설해지는데, 이것을 '범망계'라고 한다.

10중계는 10가지 무거운 계이며, 10중대계(重大戒) 또는 10중금계(重禁戒)라고도 한다. 원래 10중(重)이란 말은 율장에서 바라이죄(波羅夷罪), 즉 교단에서 추방하는 계목(戒目)에 해당되는 것이다. 〈범망경〉에서는 만약 10중계를 범하면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기 때문에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계라고 설한다. 10중계는 재가자와 출가자 모두에게 공통된 계이며, 이것을 범한다면 보살로서의 기본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10가지 무거운 계는 10가지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①살생하지 말아야 하며[不殺生], ②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며[不偸盜戒], ③음행하지 말아야 하며[不婬], ④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며[不妄語], ⑤술을 팔지 말아야 하며[不酤酒戒], ⑥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하며[不說四衆過], ⑦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아야 하며[不自讚毁他], ⑧내 것을 아끼려고 남을 헐뜯지 말아야 하며[不慳惜加毁], ⑨성내어 참회를 물리치지 말아야 하며[不瞋心不受悔], ⑩삼보(三寶)를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不謗三寶].

48경계(輕戒)는 48가지 가벼운 계를 가리키며, 10중계에 비해 가벼운 것이지 가볍게 여겨도 되는 계는 아니다. 이 가운데 30가지 계는 재가자와 출가자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이지만, 18가지 계는 그렇지 않다. 재가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3가지 계이며, 출가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15가지 계이다. 따라서 48가지 가벼운 계는 대상에 따라 지켜야 하는 계가 조금씩 다르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세세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⑦ 괴로운 이 세상 어떻게 살까요?

궁극적 의지처, 불성의 자신과 진리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진여본성 뿐이다

불자 여러분! 옛 도인들은 이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과 성인(聖人)들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당체는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한 공덕과 지혜를 갖추고 있는 진여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마음의 당체인 진여본성을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공덕장을 갖춘 불성임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 힘든 세상,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할 곳은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의 말법시대에 어리석은 이는 신에게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는 등 가상적인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의지해야 할 궁극적인 의지처는 바로 자기 자신과 진리(法 · Dharm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귀의(自歸依) 법귀의(法歸依)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진실로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며 자기는 자기가 의지할 곳(依所)이다. 그런고로 자기를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양마를 길들이듯이.(법구경 380)", "자기가 의지할 곳은 자기뿐이로다. 다른 곳 어디에 의지할 곳이 있을 것인가. 자기가 잘 조어되었을 때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 것이다(법구경 23권)"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실한 의지처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도 아난에게 참된 귀의처는 자기 자신과 진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아난다여, 여기에 스스로를 주(洲)로 하며 스스로를 의지할 곳(依所)으로 삼아라. 다른 사람을 의지할 곳으로 삼지 말며, 법(法)을 주(洲)로 하며 법(法)을 의지할 곳으로 삼아 다른 이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설하는 '주(洲)'는 'Dipa'의 번역어로 '강변', 또는 '뭍'을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이 변해 가는 세상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뭍은 언제나 그곳에 있듯이 변함없이 영원한 삶의 발판이 주(洲)인 것입니다. 한역에서는 이러한 '주(洲)'를 '등을 밝히다'라는 의미로 '등명(燈明)'으로 의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괴로움은 모두 무명(無明)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밝은 빛을 얻게 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洲)'는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 또는 '자귀의 법귀의(自歸依 法歸依)'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사람, 돈, 권력, 명예 같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 속에서도 흐르지 않는 주(洲)와 같이 자기 자신의 참 나인 진여본성의 마음 당체와 영원한 진리에 의지할 것을 부처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참 마음이 곧 부처

불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정한 귀의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참된 마음입니다. 참된 마음이란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입니다. 이 한마음의 당체(當體) 만이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해야 할 곳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스스로의 참마음이 부처요, 진리요,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우주의 근본주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망상분멸을 일으키는 중생이지만, 이 마음의 당체가 부처임을 믿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정진하며 마음을 정화시켜 본래 모습을 발현시키고자 노력합니다.

불자 여러분! 구름에 의해 가려진 태양일지라도 항상 빛은 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무명에 가려진 오염된 마음을 가진 중생일지라도 내 마음의 당체는 무량공덕을 갖춘 부처임을 믿으시고 스스로의 참된 성품을 발현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참된 행복이 펼쳐질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